

강릉 시나미 명주의 운영과 장소 경험:  
정책 브랜드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

---

강원문화의 이해

202313846 문화인류학과 박태영

2026년 6월 15일

# 목 차

## 초 록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II. 강릉 원도심과 시나미 명주 권역의 이해

1. 강릉 원도심으로서 명주동의 의미
2. 옛 명주동과 현재 시나미 명주 권역의 차이
3. 시나미 명주의 정책적 성격과 생활관광 코스

### III. 문헌자료를 통해 본 시나미 명주의 조성 의도

1. 2001년 강릉시청 이전과 원도심 쇠퇴
2. 문화공간 조성 과 명주동 문화마을 만들기
3. 시나미 명주나들이와 상권 연계 구조
4. SNS와 로컬 공간 사례에서 확인되는 명주동 이미지

### IV. 현장관찰 결과

1. 강릉대도호부 관아와 행사 중심의 공간 활성화
2. 시나미명주길 골목과 느린 장소 경험
3. 로컬샵과 카페의 분산적 소비 구조
4. 햇살박물관과 명주사랑채의 운영 공백
5. 작은공연장 단과 명주예술마당의 문화거점 기능
6. 봉봉방앗간과 파도살롱

## V. 분석 및 논의

1. 정책 브랜드와 실제 인식 사이의 간극
2. 시나미 정서의 간접적 작동
3. 장소별 운영 편차와 관리의 문제
4. 청년 유입보다 체류형 로컬 경험에 가까운 효과
5. 시나미 명주에서 시나미강릉으로의 확장

## VI. 결론

1. 시나미 명주의 의의와 한계
2. 향후 개선 방향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강릉 원도심 명주동 일대에 조성된 시나미 명주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현장관찰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 문헌과 관광 자료에서 시나미 명주는 오래된 원도심을 문화예술과 생활관광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방문객에게 느낌과 여유의 장소 경험을 제공하는 성공 사례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걸어보면 정책적 타이틀과 방문자들이 체감하는 장소 경험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현장에는 시나미 명주 안내판과 표식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대도호부관아·명주사랑채·햇살박물관·작은공연장 단·명주예술마당·골목의 로컬샵과 카페들이 있었다. 그런데 강릉에 거주하거나 강릉 소재 대학에 다니는 20대 청년들조차 '시나미 명주'라는 명칭을 낯설어했다. 반면 이들은 명주동 일대가 강릉중앙시장이나 안목해변 같은 번잡한 관광지와 달리 조용하고 여유롭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시나미 명주라는 브랜드가 직접 인지되기보다 그 정서가 장소 분위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관찰에서는 공간별 운영 편차도 뚜렷했다. 관아에서는 빵 축제로 많은 방문객이 모였고 특정 카페에 사람이 집중되는 반면 시나미명주길 골목 전반은 한산했다. 햇살박물관은 관리 상태가 충분해 보이지 않았고 명주사랑채는 방문 당시 닫혀 있었다. 반면 작은공연장 단과 명주예술마당은 공연·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나미 명주를 청년층 유입의 직접 원인이나 완성된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단정하기보다 정책 브랜드와 실제 장소 경험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한다. 명주동의 느린 골목 경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안내 체계, 운영 시간, 공간 관리, 프로그램 연계, 인지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강릉은 바다와 커피, 시장과 해변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도시다. 강릉중앙시장·안목해변·강문해변은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 장소로 활기 있고 관광중심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명주동과 대도호부관아 일대는 이와 다르다. 비교적 오래된 골목의 곁이 남아 있는 원도심 공간으로 강릉의 다른 관광지와는 다른 장소 경험을 제공한다.

명주동은 강릉의 행정과 상업 기능이 집중되었던 구도심이었다. 2001년 강릉시청이 흥제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 일대는 강릉의 중심지였고 주변에는 관공서와 상권이 함께 형성되어 있었다. 시청 이전 이후 명주동은 중심 기능을 잃고 쇠퇴했으며 이후 강릉문화재단과 지역 문화 주체들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나미 명주'라는 이름 아래 원도심의 역사성과 생활문화를 재해석하려 했다.

기존 문헌자료에서 시나미 명주는 청년층에게 느낌과 골목 산책, 로컬 문화 소비를 제공하는 긍정적 도시재생 사례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활성화된 공간이라기보다 장소마다 관리 수준과 이용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안내판과 정책 브랜드는 존재하지만 지역 청년들이 그 명칭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골목 전체가 고르게 소비되기보다 특정 카페나 행사 장소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시나미 명주를 단순한 성공 사례로 평가하기보다 정책적으로 기획된 원도심 문화 브랜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동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강릉 명주동 일대의 시나미 명주가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현장관찰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시나미 정서의 청년 유입 효과를 검토하되 시나미 정서가 청년층의 강릉 거주 결정을 이끄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명주동

일대의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나미 명주는 어떤 장소들을 연결하는 생활문화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문헌자료에서 제시되는 조성 의도와 실제 현장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 지역 청년들은 시나미 명주라는 명칭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정서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넷째, 시나미 명주 권역의 주요 공간들은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다섯째, 시나미 명주는 어떤 형태의 장소 경험과 로컬 소비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명주동을 중심으로 하되 대도호부관아가 위치한 용강동 일부와 남문동 일대를 포함한다. 시나미 명주가 엄격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대도호부관아·명주동 골목·햇살박물관·명주사랑채·작은공연장 단·명주예술마당·로컬샵과 카페를 연결하는 생활관광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명주동 도시재생의 배경과 시나미 명주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살핀다. 강릉시·강릉문화재단 관련 자료, 관광공사 자료, 지역 언론 기사, 시나미 명주나들이 소개 자료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현장관찰을 통해 각 공간의 운영 상태, 방문객 분포, 보행 흐름, 안내 체계, 공간 분위기를 기록한다. 셋째, 강릉에 거주하거나 강릉 소재 대학에 다니는 20대 청년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시나미 명주에 대한 인지도와 명주동에 대한 장소 인식을 확인한다. 추가로 SNS를 통해 시나미 명주·명주동 관련 키워드를 검토하여 정책 브랜드의 확산 정도를 가늠한다.

현장관찰은 대도호부관아·시나미명주길 골목·햇살박물관·명주사랑채·작은공연장 단·명주예술마당·봉봉방앗간·골목의 로컬샵과 카페·파도살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공간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 방문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청년층이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 안내판과 브랜드가 현장에서 얼마나 인지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 II. 강릉 원도심과 시나미 명주 권역의 이해

### 1. 강릉 원도심으로서 명주동의 의미

명주동은 강릉의 오래된 원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안내문에는 강릉시 청사가 흥제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명주동이 강릉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는 설명이 담겨 있었다. 이 안내문은 명주동이 단순한 골목 관광지가 아니라 강릉의 도시 변화가 축적된 공간임을 말해준다.

같은 안내문에는 강릉문화재단이 명주동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햇살박물관을 만드는 등 꾸준히 관리해오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전성기에 가구판매점들로 가득했던 거리가 지금은 분위기 있는 카페들로 채워져 또 다른 감성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명주동이 과거의 상업 중심지에서 현재의 로컬 감성 공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현장관찰 결과, 이러한 설명이 명주동 전체에서 균일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일부 골목과 카페에서는 새로운 감성적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햇살박물관처럼 관리가 활발해 보이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 명주동은 전면적으로 활성화된 공간이라기보다, 과거의 흔적과 새로운 소비 공간, 관리 공백이 동시에 공존하는 혼합적 장소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시나미 명주 골목 길 앞 안내문

## 2. 옛 명주동과 현재 시나미 명주 권역의 차이

중요한 것은 과거 행정구역으로서의 명주동과 현재 시나미 명주 권역을 구분하는 일이다. 현재 행정구역상 명주동은 강릉시 중앙동 관할의 법정동이지만 현장에서 말하는 '명주동' 또는 '시나미 명주'는 그보다 넓은 범위를 가리킨다. 대도호부관아는 주소상 용강동에 위치하지만 시나미 명주나들이의 핵심 장소로 포함되며 명주마실코스는 햇살박물관·남문경로당·뚝방길·복개천·작은공연장 단 등 명주동과 남문동 일대를 연결한다.

즉 과거의 명주동이 강릉 원도심의 행정적·생활권적 중심지를 의미했다면 현재의 시나미 명주는 명주동·남문동·용강동 일부를 걸어서 연결하는 생활관광 권역에 가깝다. 이 권역은 경계선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대도호부관아에서 명주동 골목, 문화공간, 카페와 로컬 샵으로 이어지는 보행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설정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 행정구역을 넘어 역사자원·문화공간·골목 상권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이다. 그러나 방문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나미 명주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 안내판은 확인되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게 체감되지는 않았다. 이는 시나미 명주가 공

간 브랜드로 기능하려면 지도·안내 체계·보행 동선의 명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3. 시나미 명주의 정책적 성격과 생활관광 코스

시나미 명주는 강릉 원도심의 오래된 장소성을 생활관광과 문화예술의 언어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시나미 명주나들이 프로그램은 명주읍성코스와 명주마실코스로 구성되었으며 방문객이 골목을 걷고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변 상점에서 소비하도록 설계된 체험형 상권 활성화 모델이었다.

그러나 현장관찰 결과, 이 생활관광 구조가 일상적으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안내판과 프로그램의 흔적은 있었지만 시나미 명주 코스 전체를 따라 이동하는 방문객은 많지 않았고 특정 카페나 행사장에 사람이 몰리는 모습이 더 두드러졌다. 정책적으로 설계된 코스와 실제 방문자 동선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Ⅲ. 문헌자료를 통해 본 시나미 명주의 조성 의도

#### 1. 2001년 강릉시청 이전과 원도심 쇠퇴

명주동의 도시재생 논의는 2001년 강릉시청 이전이라는 사건에서 출발한다. 시청은 행정 기능뿐 아니라 주변 상권과 유동인구를 형성하는 핵심 시설이었다. 시청이 흥제동으로 옮겨가면서 명주동은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었고 이후 신시가지 개발과 상권 이동이 맞물리며 구도심 쇠퇴를 경험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안내문은 이 변화를 직접적인 언어로 담고 있었다. 명주동이 시청 이전 이후 '2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멈춘 듯한' 공간이 되었다는 표현은 명주동의 현재를 단순히 낡은 동네가 아니라 도시 기능의 이동이 남긴 결과로 읽게 한다.

이 지점은 시나미 명주를 분석할 때 중요하다. 명주동의 오래된 골목과 건축물은 감성적 자원으로 소비될 수 있지만 동시에 원도심 쇠퇴와 관리 공백의 흔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 2. 문화공간 조성과 명주동 문화마을 만들기

명주동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시도는 문화공간 조성이다. 명주예술마당·햇살박물관·명주사랑채·작은공연장 단은 낡은 건물을 문화적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명주동의 오래된 장소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였다.

명주예술마당은 옛 명주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한 대규모 문화예술 공간으로 현장에서 그 규모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강릉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대관·예술교육·전시·문화 프로그램 등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은공연장 단 역시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최근 4~5월 연극·전통·무용·국악·밴드 공연 등으로 구성된 '놀자 우리랑 아트 페스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다.

다만 모든 문화공간이 같은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현장관찰 당시 햇살박물관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공간처럼 보이지 않았고 내부 관리도 충분해 보이지 않았

다. 명주사랑채 역시 방문 당시 닫혀 있거나 조용한 상태였다. 문화공간의 조성이 곧 지속적 운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 3. 시나미 명주나들이와 상권 연계 구조

시나미 명주나들이 프로그램은 명주동 일대를 단순히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생활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해설투어·골목사진·근현대의상 체험·미디어트레킹·명주쿠폰 등을 통해 방문객의 이동과 소비를 골목 전체로 분산시키려 했으며 특히 명주쿠폰은 지역 상점 45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관광 경험과 상권 소비를 연결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현장관찰 결과, 이 연계 구조는 부분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으로 보였다. 골목 곳곳의 소품샵과 카페에서 구경하는 재미는 있었지만 골목 보행자는 많지 않았고 특정 카페에만 사람이 집중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상권 연계가 골목 전체로 고르게 확산되기보다 개별 인기 점포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 4. SNS와 로컬 공간 사례에서 확인되는 명주동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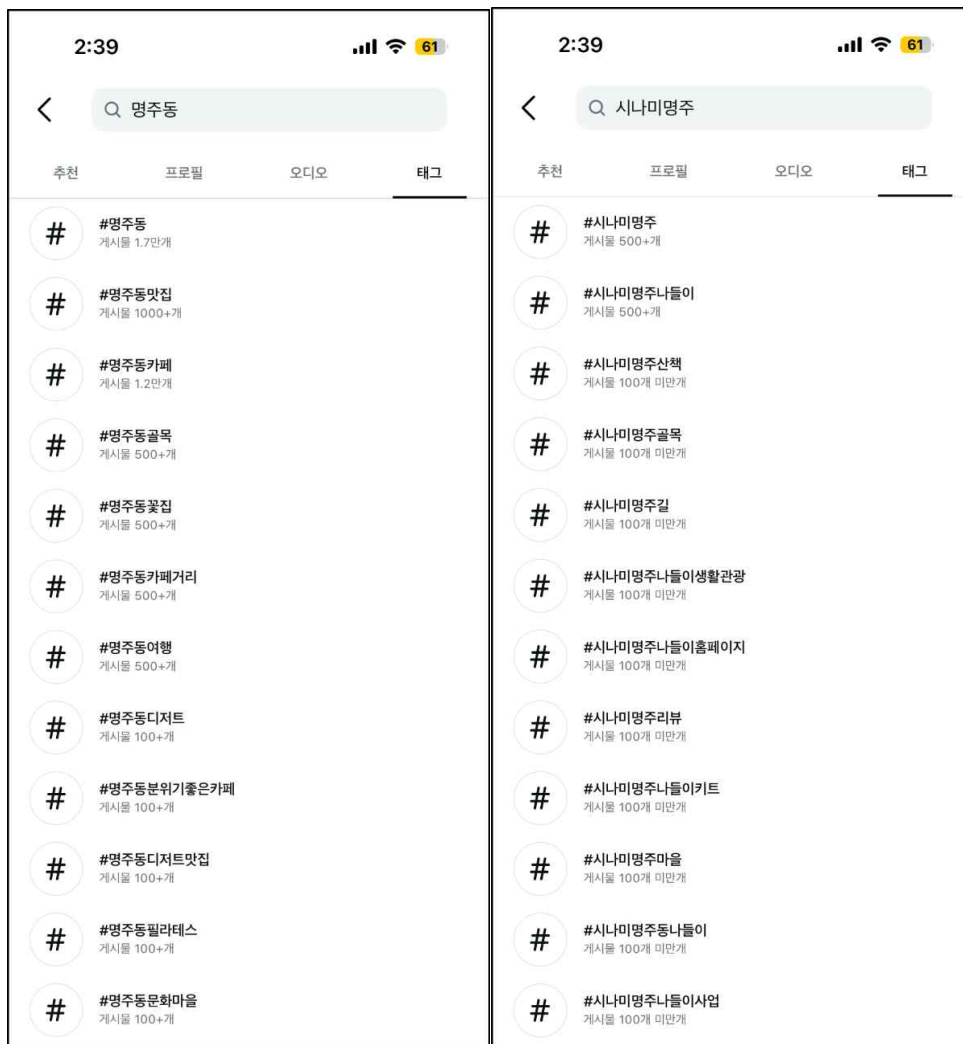
인스타그램에서 명주동, 시나미명주를 검색했을 때 1.7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업로드 되어있었고 '아늑한', '아날로그', '한적한', '조용히', '힐링'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시나미 명주라는 공식 명칭이 널리 인식되지 않더라도 명주동이 조용하고 느린 분위기의 장소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SNS 속 명주동의 이미지는 공식 브랜드로서의 시나미 명주보다 감각적 장소 이미지로서의 시나미 정서에 더 가깝다.

명주동의 여러 로컬 공간도 이 이미지를 강화한다. 100년이 넘는 적산가옥을 활용한 카페, 한옥 감성을 살린 공간, 구가옥의 구조를 보존한 카페들은 모두 오래된 건축물과 현재의 감성 소비가 결합된 사례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골목 안쪽까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명주동의 매력이 경관이 아니라 분위기와 체류 경험에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일부 카페는 미술심리검사·홈카페 음료 만들기·캘리그래피 원데이 클래스처럼 단순 소비를 넘어선 체험·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문화도시 사업에서 강조

하는 생활문화 거점의 방향과도 맞닿는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이 작가로 참여해 작품을 만들고 팝업을 열었던 지킴이 문구점 사례처럼 명주동의 문화는 청년층의 감성 소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명주동은 분명히 고유한 역사를 지닌 로컬 공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시나미 명주'라는 공식 타이틀을 중심으로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명주동은 강릉을 방문할 때 한 번쯤 들르는 조용한 골목 관광지 혹은 특정 카페와 로컬샵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감성적 원도심에 가깝다. 시나미 명주의 현재적 의미는 강한 브랜드 인지도보다 개별 공간들이 만들어내는 누적된 장소 이미지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인스타그램 '명주동' 검색

인스타그램 '시나미명주' 검색

## IV. 현장관찰 결과

### 1. 강릉대도호부 관아와 행사 중심의 공간 활성화

현장관찰 당시 강릉대도호부 관아에서는 빵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역사 공간이 단순히 보존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축제와 결합해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공공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활성화는 일상적인 것이라기보다 행사 중심의 일시적 활성화에 가까웠다. 관아 안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시나미명주길 골목 전체로 이어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대도호부관아가 강력한 집객 장소로 기능하더라도 그 효과가 주변 골목과 상권으로 이어지려면 더 명확한 동선 안내와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나미 명주 안내 표식



대도호부관아

### 2. 시나미명주길 골목과 느린 장소 경험

시나미명주길 골목은 현장에서 시나미라는 정서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진 공간이었

다. 오래된 집, 낮은 담장, 조용한 골목길, 그 사이로 이어지는 작은 로컬샵과 카페들이 빠른 관광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실제로 골목을 걸으면서 혼자 여유롭게 구경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왜 이곳이 시나미 명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골목의 분위기와 실제 이용 양상은 다소 달랐다. 방문 당시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향유하는 방문객은 많지 않았고 50대 여성 네 명 정도가 걸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관찰되는 정도였다. 청년층이 골목 전체를 산책하거나 시나미라는 이름을 의식하며 이동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 골목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그 매력이 체계적인 방문 동선이나 지속적인 보행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내·프로그램·공간 연결이 더 필요하다.



100년된 건물을 활용한 카페 오뉴월



시나미 명주길 골목

### 3. 로컬샵과 카페의 분산적 소비 구조

명주동 골목 곳곳에는 소품샵과 카페가 꽤 있었고 직접 걸어보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오래된 골목과 작은 상점들이 결합하면서 대형 관광지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소규모 취향 소비가 가능했다.

다만 방문 당시에는 특정 한 카페에만 사람이 집중되어 있었고 골목 전체가 고르게 붐비는 모습은 아니었다. 시나미 명주가 면 단위의 상권으로 균등하게 활성화되었다기보다 특

정 매력 지점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봉봉방앗간은 방문 당시 휴무였지만 외관만으로도 강한 장소성이 느껴졌다. 오래된 집 같은 분위기와 정감 있는 외관은 운영 여부와 별개로 오래된 건축물 자체가 명주동에서 중요한 감성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산가옥 카페



소품샵

#### 4. 햇살박물관과 명주사랑채의 운영 공백

햇살박물관은 문헌자료에서 명주동 마을 아카이브와 지역 기억의 상징적 공간으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관찰 당시 활발하게 운영되는 공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외관은 남아 있었고 내부 정리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명주사랑채 역시 방문 당시 닫혀 있거나 매우 조용한 상태였다.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거나 비정기적이라면 방문자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시나미 명주 코스의 살아있는 거점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이 두 공간은 시나미 명주의 핵심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마을 아카이브나 생활문화 공간은 시설 자체보다 운영자·프로그램·개방 시간·안내 체계가 더 중요하다. 이 두 공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나미 명주의 핵심 가치인 지역 기억과 생활문화의 전달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명주사랑채



햇살박물관

## 5. 작은공연장 단과 명주예술마당의 문화거점 기능

작은공연장 단은 최근 '놀자 우리랑 아트 페스타'가 진행되었다. 연극·전통·무용·국악·밴드 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 행사는 명주동 일대가 여전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주예술마당은 현장에서 규모가 매우 크게 느껴졌다. 단순한 골목 상점이 아니라 명주동 일대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프라로, 대관·교육·전시·시민문화 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일상적 골목 소비와 공공 문화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 두 공간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기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들어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지, 특정 행사나 공연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공간인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이는 시나미 명주의 운영 방식이 일상적 상시성보다 행사 중심성에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공연장 단

명주예술마당

## 6. 붕붕방앗간과 파도살롱

붕붕방앗간과 파도살롱은 시나미 명주 권역의 서로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다. 붕붕방앗간은 오래된 건축물과 감성적 소비가 결합된 공간으로, 방문 당시 휴무임에도 외관만으로 명주동 특유의 분위기를 강하게 전달했다.

반면 파도살롱은 단순 소비 공간이라기보다 청년 창업자·로컬 크리에이터·리모트 워커가 일하고 교류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다. 명주동이 카페를 소비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층이 일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적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파도살롱을 시나미 명주라는 관광 브랜드와 직접 연결해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유입의 대중적 증거라기보다, 명주동이 청년 생산자에게도 열려 있는 가능성의 사례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파도살롱

## V. 분석 및 논의

### 1. 정책 브랜드와 실제 인식 사이의 간극

현장관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시나미 명주'라는 이름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지역 청년들의 언어 속에는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명주동 곳곳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문헌상으로는 생활관광 프로그램도 확인되지만 강릉에 거주하는 23세 청년과 강릉 소재 대학에 다니는 25세 청년 두 명은 시나미 명주라는 명칭을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정책 브랜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민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시나미 명주의 중요한 한계이지만 명칭의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시나미 정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은 시나미 명주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명주동 일대를 조용하고 여유로운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책 브랜드로서의 시나미와 감각적 장소 경험으로서의 시나미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2. 시나미 정서의 간접적 작동

강릉에 거주하거나 강릉 소재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은 강릉에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다고 말했으며, 명주동과 대도호부관아 일대 역시 조용하고 여유로워 좋다고 인식했다.

강릉중앙시장이나 안목해변·강문해변 같은 관광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고 놀러 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서 힐링하고 싶을 때는 조용한 곳을 찾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응답은 시나미 정서가 청년층을 강릉에 살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강릉과 명주동의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시나미 명주라는 말을 몰라도 조용함·여유·평안함이라는 감각을 통해 시나미적 장소 경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나미 정서는 청년층 유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강릉 안에서 특정 장소를 혼잡한 관광지와 구분해주는 분위기와 감각에 가깝다. 명주동은 청년층에게 거주를 결정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이라기보다, 강릉 안에서 조용히 걸으며 쉬고 구경할 수 있는 대안적 장소로 기능한다.

### 3. 장소별 운영 편차와 관리의 문제

시나미 명주 권역의 가장 큰 문제는 장소별 운영 편차다. 대도호부관아는 축제와 결합해 많은 사람을 모았고 작은공연장 단과 명주예술마당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거점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었다. 골목의 로컬샵과 카페도 명주동의 감성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반면 햇살박물관과 명주사랑채는 현장에서 운영이 활발해 보이지 않았다. 특히 햇살박물관은 마을 아카이브와 지역 기억의 핵심 공간으로 소개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낡고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는 방문자가 문헌에서 기대한 것과 실제 경험 사이에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시나미 명주는 단일 건물이 아니라 여러 장소가 이어져 만들어지는 권역이기 때문에 한두 공간의 운영 공백은 전체 코스의 완성도에 영향을 준다. 느리게 걷고 머무는 생활관광을 지향한다면 각 거점의 개방 여부·운영 시간·안내 체계·관리 상태가 매우 중요해진다.

### 4. 청년 유입보다 체류형 로컬 경험에 가까운 효과

기존 논의는 시나미 정서가 청년층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장관찰과 비공식 대화 결과를 반영하면 이 주장은 다소 과장될 수 있다. 명주동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강릉에 살게 하거나 명주동으로 유입되게 만드는 직접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나미 명주의 효과는 청년층 유입보다 체류형 로컬 경험에 가깝다. 방문자는 골목을 걸으며 조용함을 느끼고 소품샵과 카페를 둘러보며 축제나 공연이 있을 때 관아와 작은공연장 단을 찾는다. 이러한 경험은 강릉의 혼잡한 관광지와 다른 방식의 장소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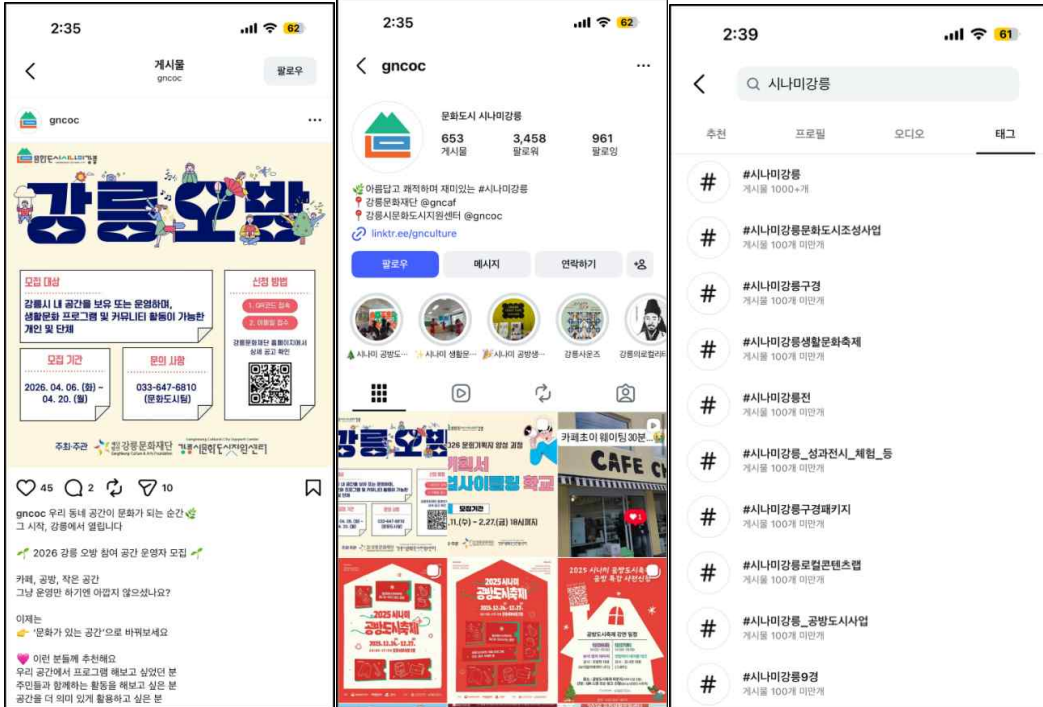
따라서 시나미 명주의 성과는 청년 인구 유입이나 정주 효과보다 원도심을 얼마나 걷고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었는지, 지역 상점과 문화공간을 얼마나 연결했는지, 방문자가 강릉의 다른 얼굴을 경험하게 했는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시나미 명주에서 시나미강릉으로의 확장

시나미 명주나들이 프로그램은 2021~2022년 자료가 주로 확인되며 현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시나미 명주나들이가 한 시기의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 현장에서 상시 체감되는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강릉의 시나미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에는 시나미 명주라는 특정 권역 중심의 생활관광보다 '문화도시 시나미강릉'이라는 더 넓은 틀에서 생활문화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 오방 공간 운영자 모집·시나미 로컬콘텐츠 랩·공방 도시축제·시나미 생활문화축제·로컬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시나미 명주의 현재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시나미 명주나들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은 현재 현장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나미라는 문화도시의 방향성은 강릉 전역의 생활문화 사업으로 확장되며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나미 명주를 평가할 때는 이 두 흐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 1. 시나미 명주의 의의와 한계

시나미 명주의 의의는 강릉 원도심을 빠른 관광 소비가 아닌 느린 장소 경험의 공간으로 재해석하려 했다는 점에 있다. 명주동의 오래된 골목·로컬샵·카페·역사자원·문화공간은 해변 관광지와 다른 결의 경험을 제공하며 현장에서도 그 분위기는 분명히 느껴졌다.

그러나 시나미 명주는 완성된 도시재생 성공 사례라기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안내판은 있지만 권역이 명확히 체감되지 않았고 브랜드명은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일부 공간은 운영이 활발하지 않았고 방문자 흐름은 특정 카페나 행사 장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시나미 명주의 한계는 정서의 부재가 아니라 운영과 인식의 불균형에 있다. 공간이 가진 느낌과 여유의 분위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하나의 코스와 상권 경험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 2. 향후 개선 방향

시나미 명주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시나미 명주의 권역과 동선을 더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대도호부관아에서 시나미명주길 골목, 햇살박물관, 명주사랑채, 작은공연장 단, 명주예술마당, 로컬샵과 카페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현장 안내가 필요하다.

둘째, 공간별 운영 시간과 개방 여부를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특히 생활관광 코스의 핵심 거점으로 제시되는 공간은 상시 개방이 어렵더라도 운영 시간·휴관일·프로그램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했을 때 닫혀 있거나 관리가 부족한 공간은 방문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셋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가 필요하다. 현장 안내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 학교·커뮤니티·SNS·로컬 상점과 연계한 홍보가 필요하며 그 방향은 무리한 관광지화

가 아니라 조용히 걷고 머무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넷째, 행사 중심 활성화와 일상적 골목 경험을 연결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프로그램은 중요하지만 그 방문객이 골목과 로컬샵, 문화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도보 지도·스탬프 투어·해설 프로그램·소규모 공연과 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시나미 명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장소 경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섯째, 이미 형성된 로컬 공간의 감성을 존중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확인되는 '아늑함', '아날로그', '한적함'의 이미지는 오래된 건축물·골목 분위기·로컬샵 운영자의 철학·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만든 결과다. 새로운 시설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로컬 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방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시나미 명주는 청년층을 강릉에 살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기보다 강릉 원도심의 조용한 정서와 생활문화적 매력을 드러내는 공간 브랜드다. 이 브랜드가 실제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감성적 이미지뿐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관리, 명확한 동선, 공간 간 연계, 지역민과 방문자의 인식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강릉문화재단. 강릉시문화예술소식.

<https://gncaf.or.kr/contents.asp?page=400&K=%ED%96%89%EC%82%AC%2F%EC%B6%95%EC%A0%9C>

강릉문화재단 대관시스템. 명주예술마당. <https://gncaf.denopos.com/pub/myungju.do>

국가유산포털. 강릉대도호부 관아.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

대한민국 구석구석. 문화와 예술의 옷 입은 오래된 동네, 강릉 명주동.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45c5433f-92ea-4dd7-9c92-61863a251cab](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45c5433f-92ea-4dd7-9c92-61863a251cab)

대한민국 구석구석. 오늘은 현지인처럼 강릉 여행, 시나미 명주나들이.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a57acb6c-55b5-4e22-8229-da7fe15ddce5](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a57acb6c-55b5-4e22-8229-da7fe15ddce5)

더웨이브컴퍼니. 파도살롱. <http://thewavecompany.co.kr/padosalon>

더웨이브컴퍼니. 파도살롱 강릉에 코워킹스페이스 만들기 공간편.

<http://thewavecompany.co.kr/blog/?bmode=view&idx=1870509>

문화도시 시나미강릉. 2026 문화도시 강릉 오방 공간 운영자 모집.

[https://www.sinami.co.kr/board/bbs/board.php?bo\\_table=hp\\_notice&wr\\_id=286](https://www.sinami.co.kr/board/bbs/board.php?bo_table=hp_notice&wr_id=286)

문화사업지원플랫폼 모모365. 2025 문화도시 시나미강릉 시나미 로컬콘텐츠 랩 참여자 모집 공고.

<https://www.momo365.net/Support?cd=support&ViewType=detail&seq=155946>

연합뉴스. 과거 현재 공존 강릉시 명주동 남문동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047900062>

이비여행. 강릉 명주동 골목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

<https://www.ibtravel.co.kr/issue/25280/>

파랑달협동조합. 2021 생활관광 시나미 명주나들이.

[https://www.parangdal.co.kr/board/shop/tour.php?it\\_id=1618277198](https://www.parangdal.co.kr/board/shop/tour.php?it_id=1618277198)

현장관찰 기록. 강릉 명주동, 대도호부관아, 시나미명주길, 햇살박물관, 명주사랑채, 작은공연장 단, 명주예술마당, 봉봉방앗간, 파도살롱 일대 관찰. 2026.

SNS 분석 기록. 인스타그램 명주동 관련 게시물 키워드 및 로컬 공간 사례 분석. 2026.

비공식 대화 기록. 강릉 거주 23세 청년 1명 및 강릉 소재 대학 재학 25세 청년 2명과의 시나미 명주 인지도 및 명주동 장소 경험 관련 대화. 2026.